

한 번 시공으로 만년을 보장하는
대원 청동주물기와
 전화 : (02) 739 - 8745 · 735 - 2344

현대불교

55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 080 - 023 - 4000

영예회장 노대행/발행인 김원집/편집인 김광성/논설고문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식/등록번호 다-3379/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0693
 불교 2538년(서기 1994년) 11월 2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서안을 하고 있는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숫타니파티)

법회 안내

- 개운사 924-3842
 신도법회 매월 초하루(음)
 인종기도 매월 보름(음)
 지장기도 매월 18일(음)
 관음기도 매월 24일(음)
 경국사 914-5447
 참의 법회 매월 10일(음)
 지장 법회 매월 18일(음)
 관음 법회 매월 24일(음)
 사경 법회 매주 수요일 1시
 봉국사 919-0211
 약사재일 매월 8일(음)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관음기도 매월 24일(음)
 관음의 법회 매주 일 오후 3시
 원효정사 744-9686
 선종재일 매월 7일(음)
 법안지장기도 매월 18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관도사 979-5183
 장미법회 매주 일 오전 10시
 어린이 법회 매주 보 오후 3시
 경전 읽기 매주 보 오전 10시
 정토사 883-5554
 새벽예불 매일 오전 3시30분
 초하루기도법회 매월 1일(음)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청주 연회사 (0431)82-0310
 관음특별기도 3주간
 광주 천왕사 (062)227-7034
 신도 법회 매월 초하루(음)
 지장 재일 매월 18일(음)
 관음 재일 매월 24일(음)
 성남 불국사 (0342)755-0329
 백암기도 (9. 13-12. 24)(음)
 어린이 법회 매주 일 오전 9시
 종교생 법회 매주 일 오후 2시
 청년 법회 매주 일 오후 5시
 동국대 경주병영 법당 (0561)748-9320
 아침 예불 매일 오전 8시30분
 지인 법회 1.3주 수요일 5시30분
 한자 법회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이란은 각 사찰의 법회 소식을 알리는 난입니다. 법회안 내용을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신행 포교 새 바람 지역 법회 확산

봉사·상조등 불자 공동체 다져... 조직분산 우려도

법회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법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역법회'가 새로운 포교현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법회가 더 이상 법당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주문을 박차고 나선 것이다. 지역법회는 10~20여명의 불자가 각각의 가정을 돌아가면서 정기법회를 갖는 것으로 도심 사찰과 포교당에서 운영, 커다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법회의 명칭은 사찰에 따라 법동·구예·마을·법행대·과담법회 등으로 불린다. 이들 법회들은 대부분 지역별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스님과 신도, 신도와 신도간의 유대감화는 물론 직은 인원이 동원하기에 법회효과를 크게 높이고 있다. 또한 상조회의 기능까지 갖고 있어 회원 상호간의 경조사와 지역봉사까지 활동영역을 넓혀 불교의 대 사회문명을 펼치고 있다. 지역법회는 서울 불국사 회주 광덕스님이 처음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82년 본격적으로 지역법회를 운영한 광덕스님은 행정구역인 구마나구법회를 조직하고 구법회 산하에 법동모임을 두어 현재 3백여개의 법동이 활동하고 있다. 불국사의 법동모임 상공은 도심사찰에 자극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후 삼봉사, 봉은사, 능인선원 등에서도 지역법회를 운영, 포교의 새바람을 일으켰다. 광명시 금강정사(주지 지촌)는 특이하게 지역법회로 사찰을 창건한 경우. '89년, 광명사에서 청년회와 법동모임 3개를 운영하면서 2달만에 법당을 마련한 것이다. 금강정사는 27개의 지역모임을 경안암기, 향산, 기도정진을 하는 수행모임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활동을 펼치는 환경개선모임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으로서 불교개혁을 선도하고 있는 지촌스님은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자치제에 사찰도 준비를 해야 한다"며 "지역법회를 통해 조직을 강화하고 지역문제를 함께 고민할 때 사찰도 지역공동체로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안양 한마음선원(원장 대행)도 서울과 경기일원에 지역별로 24개의 법행채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10명 안팎의 거사들로 구성된 법행채는 매월 1회씩 신도들의 가정에서 법회를 개최, 각자 형제가 되어 한 마을 공부를 하고 있다. 한마음선원의 법행채는 지역법회가 법회 성격상 여성이 대부분인 것에 맞춰 거사들로 조직되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한마음선원은 보살들의 모임인 신행회에서도 90여개의 지역법회를 운영하고 있다. 강남 봉은사도 서울의 7개구에 연동법회 21개와 법동법회 41개가 활동중이다. 봉은사의 구역법회는 결혼상당과 정통차집,상조회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구별로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상계동 사천왕사(주지 현승)는 5년전 개원과 함께 24개의 화엄법회를 운영



얼굴없는 부처님... 국보 2호의 수난

탐굴공민 안의 원각사지 10층석탑의 훼손 상태가 심각하다. 92년 문화재 관리국의 실측 조사보고 때 이미 그 심각성이 대두 됐으나 당국과 고계의 무관심이라 할 수 있다. 공해·산성비·조류의 오염 등 자연 미모더다 동지각한 사찰들이 위한 인위적 훼손까지 겹쳐 탑의 기단과 각층의 화살판이 붕괴사납게 변형되고 있다. 성보이며 국보인 이탑의 보호는 당국과 불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과제다. (관련기사 13면, 사진=북채환 기자)

교구종회법 승려법등 제·개정

조계종 11차 개혁회의
 회법 본사주지회의법 분담금납부에 관한 법 사찰운영위원회
 목어
 조계종의 개혁불사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그런데 비구니스님들의 향정권 제한 문제로 조계종단 안팎이 어수선하다. 총무원장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330명의 선거인단 구성에 비구니 스님들은 10명 밖에 할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혁회의의 입장은 총경의 5석에 비해 1백% 신장된 것이 다 받고 있다. 그러나 종단 내 성별의 비율이나 사대호를 무시한 정권대적 발상이라는 것이 비구니계의 입장이다. 사실 조계종단의 보수적 풍토 속에서 비구니승려들의 입지는 진부하다고 할 수 있다. 해서 보면 지역과 당연한 사안이다. 그러나 단지 비구니에로 향정권을 제한하거나 전 통어나가 그럴수 밖에 없다는 것은 비합리적이 그치지않다. 비구니 스님들의 향정권 제한은 조계종의 보수적 전통 속

법 원도회의법 등을 각각 새로 제정하고 총무원법 지방종정법 법규위원회법 승려법 교육법을 민정자치로 개정했다.

사부중? 일부중?
 남녀의 권력이 세계적 추세임에도 비구니의 존재는 출가했다는 사실 자체로 반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비구니 스님들의 향정권 제한은 조계종의 보수적 전통 속을 무시한 정권대적 발상이라는 것이 비구니계의 입장이다. 사실 조계종단의 보수적 풍토 속에서 비구니승려들의 입지는 진부하다고 할 수 있다. 해서 보면 지역과 당연한 사안이다. 그러나 단지 비구니에로 향정권을 제한하거나 전 통어나가 그럴수 밖에 없다는 것은 비합리적이 그치지않다. 비구니 스님들의 향정권 제한은 조계종의 보수적 전통 속

금주의 현대불교

- 인명경시·황금 만능이 부른 업보 2면
- 신문밖의 선 박준수 부장판사 5면
- 수요 인터뷰 광덕스님 7면
- 지상법석 송광사 방장 승찬 스님 8·9면
- "놀이하며 부처님 닮아가요" 11면
- 불교사전 주제별 편찬 활발 12면
- 원각사지 10층석탑 훼손 심각 13면
- 관공서·기업체 연수에 참선 바람 15면

세계경영 우리기술- 대우

대우 해외법인이 2배로 늘었습니다

세계경영의 성과가 무한대로 커집니다

해외산업기지 229개로 국내 1위- 대우는 국부창출에도 가장 앞서갑니다.

세계경제전선에서 공세적 '세계경영'으로 한국 1위의 신화를 만들어낸 대우의 해외법인이 작년말 76개에서 현재 135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94개 지사를 포함, 229개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해외 산업기지를 갖춘 대우는 지구촌 곳곳을 빈틈없이 연결하는 종합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대우는 앞으로도 '2001년 600억 해외 산업기지 구축, 해외 현지매출 35조원 달성'을 목표로 '세계경영'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대우가 있습니다.

세계경영, 해외 산업기지 구축현황- 현재 229개 2001년 목표 600개

구분	지역	개수	비율
총계	국내	229	100%
	해외	135	59%
지역별	미국	15	11%
	중국	12	9%
산업별	제조업	110	48%
	서비스업	125	55%